

금융사간 ISA이전 허용... 업계 '불만폭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14일 도입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금융회사간 이전이 이르면 5월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업계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ISA 출범 전부터 업계의 불만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ISA의 금융사간 이전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 관계자는 "ISA의 금융사간 이전은 새롭게 규제를 풀었다거나 한 것이 아니다"며 "예초부터 이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으로 잡고 있었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따로 발표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업계에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고, 예약결제원과 각 금융회사간 시스템 구축이 마련되면 5월경 ISA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와 충분히 소통했다는 당국의 설명

금융당국, TF 회의를 알렸지만 이는 사람 없어 무리한 초기 고객 확보 이벤트 진행한 업체 반발

과는 달리 ISA를 준비 중인 금융 현장에서는 반대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사간 ISA 이전이 가능하다는 소식은 최근 기사를 통해 처음 알았다"며 "당국은 TF를 통해 업계와 내용을 공유했다지만 사실상 주변에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이 최대 5년이라는 점 때문에 그동안 각 금융사들은 초기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며 "만약 금융사간 이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알았다면 가입 후 언제 떠날지 모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리해 자동차나 골드바 증정과 같은 대형 이벤트도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얼마 전 은행권에 ISA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을 허용했는데 이때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투자일임업 허용과 같이 중요한 사안을 불과 제도 시행 한 달 전에 갑자기 발표하는 건 하루 아침에 관련 작업에 돌입해야 하는 업계의 상황을 무시한 처사"고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이 정책을 수시로 바꾸면 현장에는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속도보다는 안정감에 무게를 두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ISA 이전이 허용되며 은행과 증권사간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점이나 인력 면에서 월등히 앞서는 은

행권이 투자일임형까지 손에 쥐며 한 발 앞서 나갔지만 증권업계도 ISA 이전 허용으로 반격의 기회를 잡았다.

ISA 경쟁이 '초반 유치 경쟁'에서 '수익률 경쟁'으로 바뀌며 자산운용 경쟁이 풍부한 증권업계가 더 유리해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일형 ISA 준비 기간이 짧아 당분간은 증권사와의 경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사간 이동까지 가능해지면 추후 수익률에 따라 고객에 증권사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재은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ISA 이전이 허용되면 아무래도 수익률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수익률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많고 경쟁이 풍부한 증권사들이 은행에 비해 우위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안진수 기자



기아신차 모하비, 사전계약 물량 5700대 돌파

기아자동차가 지난 16일 출시한 신형 모하비의 사전 계약 물량이 5700대를 넘어섰다.

서보원 기자차 국내마케팅실 이사는 23일 경기 고양 엠블호텔에서 열린 미디어시승회에서 "지난해 9월 모하비 생산을 중단한 후부터 사전계약 실시간 결과 누적 계약 물량이 5700대를 돌파했다"며 "이 같은 폭발적인 판매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대형 플래그십 SUV인 모하비를 새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6에 맞추기 위해 지난 9월부터 판매를 중단했다. 기아차는 이달 16일 신형 모델인 '더 뉴 모하비'를 출시했다.

기아차는 출시 전까지 정식 사전계약 행사가 없었음에도 누적계약 물량이 4500대를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판매량을 감안하면 하루에 200대 가량 계약된 셈이다. 계약고객은 차량의 특성상 남성이 83%를 차지했다. 또 연령별로는 70%가 40~50대 남성이었다. 계약 중 7인승이 70%, 5인승이 30%였다.

기아차 국내영업본부장인 김창식 부사장은 "모하비는 국산 대표 SUV로서 확고한 마니아를 가진 차종"이라며 "소비자의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한국 성장률 2.6% 못 미칠듯

LG경제연구원, 세계 경제 성장률 2%대 전망 영향

세계경제의 하향 흐름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성장률 이하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LG경제연구원은 23일 '세계경기 둔화와 통화정책 한계로 글로벌 금융리스크 더 커졌다' 보고서를 통해 신흥국에 맞춰졌던 금융 불안이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 대부분 국가의 경제활동이 낮아지면서 신흥국에 대한 불안도 겹치고 있다.

하지만 양적완화 등 기존 통화정책의 확대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2014년 이후 도입된 마이너스 금리정책도 아직 효과가 잠정적이지 않았다.

불확실성 증대로 전반적 소비 및 투자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수요확대 효과는 제약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은행권의 수익성 저하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마이너스 금리가 확대되면서 유럽은행의 순이자마진이 축소되고 유럽국 채수익률도 낮아지면서 유로존 은행

리스크가 쉽게 사라지지 어려워 보인다.

일본에서도 마이너스 금리정책 강화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환율 급변 등 재발 위험이 크다.

또 원유가격 조절 실패로 인한 저유가가 이어지며, 산유국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국제금융을 신청한 국가 외에도 베네수엘라나 이집트, 이라크 등의 위기 가능성이 높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의 국부펀드 회수 과정에서 각종 금융자산 가격 하락 및 위험기피 경향 확대가 예상된다.

실물경기 및 금융상황이 취약한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한 지역의 리스크 발생이 다른 지역으로 널리 전파되면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근태 수석연구원은 "세계경제 영향으로 국내경제도 지난해에 2.6%에 못 미치는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지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거시전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통화스와 확대를 통해 불안감 상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수 기자



하이파이 플러스로 즐기세요 2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에서 관람객이 LG하이파이 플러스로 음악을 듣고 있다. (사진=LG전자 제공)

한은, 3급이하 직원도 성과연봉제 적용

한국은행이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의 지시로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 추진과 관련한 인사·급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가동 중이다.

TF는 성과연봉제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성과보수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TF팀장은 김준기 인사경영국 준법관리인이 맡고 있다. 개선안 마련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필요한 부분

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개선안 마련은 올 상반기 내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지침 등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은은 3급 팀장·반장급 이상에 한해서만 성과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다. 개선안 마련 작업이 끝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대상이 3급 이하 직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안진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